

남한산성도립공원 등산객과 비등산객의 장소 가치인식 비교 연구

김예은 · 김현* · 백난영**

단국대학교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상지대학교 친환경식물학부

Comparison between Hiker and Non-hiker's Sense of place value at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Kim, Ye-Eun · Kim, Hyun* · Paek. Nanyoung**

Graduate Student, Dept. of Bio-Resources Scienc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orticulture & Landscape Architecture, Sangji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comprehend difference between hiker and non-hiker's sense of place value at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Especially, it was analyzed after visitors, who were divided into local residents & tourists and first time visitors & repeat visitors. Out of 600 visitors, who were over 19 years old, participated in the survey, 587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Consequently, Sense of place value at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were classified into three factors: Health·Culture, Ecology·Environment, and Connectedness. Hikers feel higher value on promotion of health, relaxation, environment than non-hikers. Among hikers, local residents feel higher value on ecology-environment and connectedness than tourists. Among non-hikers, however, they have no difference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only repeat visitors and first time visitors. On this result, possibility of resident participation management on natural environment and trail was considered, and when the program, which is for raising cultural and traditional value, would develop, increasing number of repeat visitor should be considered as a high priority.

Key words : Namhansanseong Provincial Park, Sense of place Value, Purpose of visit, Local resident, Repeat visitor

1. 서 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주체가 되어 자원관리는 물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명품마을 지정, 생태관광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이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하는 도립공원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한정된 예산과 조직으로 인하여 계획 수립 및 규제 위주의 관리에 머무르고 있어 등산이나 탐방로 이용 등 매우 단조로운 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방문객 관리를 위한 방문객 특성과 이용행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또한 대부분 국립공원 중심으로 수행되었고(이영경, 2008; 허상현, 2008; 이진의 외2명, 2015 등),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자원조사와 관리 연구에 그치고 있어 도립공원의 방문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방문객에 대한 연구는 이보미외 2인(2013), 김진탁외 1인(2011) 등과 같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분류하여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교통의 발달과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관광-레크리에이션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분류가 모호해지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일상공간이 비일상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여부와 함께 활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Hwang et al. (2005)은 활동중심의 방문객과 장소중심의 방문객이 해당 장소와 그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각기 다른 기대와 만족을 갖는다고 하였다. 활동과 장소 중 어느 것이 방문객의 기대나 만족에 선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김상오, 2011), Needham et al.(2007)와 Vaske et

Corresponding author : Paek, Nanyoung

Tel : 033-730-0517

E-mail : npaek@sangji.ac.kr

al.(1982), 박수정(2012) 등과 같이 목적지 선정과 긍정적 태도에 활동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연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방문경험 등의 활동에 대한 국내 연구는 축제(홍정화, 2009; 장양례, 2007 등), 관광지(이재근외 2명, 2013; 김현외 2인, 2014 등)에서만 다수 수행되었고 공원분야에서는 재방문의도에 대한 분석(박희진, 2002; 이창현외 2인, 2013 등)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도립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객의 주요 활동과 방문경험에 따른 장소의 가치 인식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경기도 최초의 도립공원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고, 등산·탐방은 물론 문화관광 등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사

1. 도립공원의 이용과 관리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연·문화경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되는 자연공원이다. 2015년 6월 현재 총 3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1020.19km²로 국립공원의 약 15.3%, 전 국토의 약 1%에 해당한다.

도립공원에 대한 연구는 식생조사에 관한 연구(김용식 1989, 김종엽 2012, 한봉호 외3명 2014 등)에서 시작되었으며 90년대 이후 생태자원 조사로 확대되었고, 이와 함께 이용 주체인 방문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김세천외 2인(1995)은 모악산 도립공원 방문객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용형태, 이용 전 기대도, 이용 후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경관 및 식생 만족도 분석 및 결정요인 추출로 환경설계 및 합리적인 관리를 제안하였다. 조문수(1995)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문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보현외 1인(2012)은 무등산도립공원(2012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을 대상으로 방문객의 방문 계절, 요일, 시간과 집중되는 장소를 조사하여 방문객 관리와 함께 캠페인, 훼손지복원 등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김상미외 1인(2013)은 무등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이용객 행태를 조사하고 어등산과의 연계를 통해 적정 이용객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고찰하였다.

조의영(2006)은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등산로 중심의 획일적인 국공립공원 개발방식에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이숙향(2015b)은 팔공산도립공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탐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탐방 편의성, 지역시설 및 서비스, 공원시설 및 관리를 도출하였으며, 이덕재(2015)는 가치산도립공원의 사찰숲길을 휴양적 요소(숲길의 자연성, 상태, 길이)로 분류하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길유형을 추출하여 향후 타 사찰숲길로의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도립공원에서의 방문객에 대한 연구는 행태, 요구도, 만족도 등에 국한되어 왔다. 이숙향(2015a) 등도 도립공원의 방문객에 대한 가치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방문객의 가치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2. 공원의 가치인식

가치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구분·진행되어 왔다. 경제적 차원은 CVM 활용 등의 지각된 가격 차원으로 접근하여 가치를 산정하였고, 심리적 차원은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접근이로 수행되었다(전형규외 2인, 2010). 장소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범위에서 인간의 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며 장소의 상태, 인간의 행위에 의해 그 가치가 구현된다 할 수 있다(어정연외 1인, 2010).

주호진외 1인(2013)은 8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립공원의 가치를 평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향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재영외 1인(2003)은 국립공원의 생태계 관리 수립 정책에서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문제를 분석하는 등 공원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원의 가치인식은 공원의 유형, 혹은 방문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주희외 2인(2006)은 국립공원의 탐방 및 보존가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원 유형별로 국립공원의 탐방 및 보존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공원의 자연적 가치에 대하여 CVM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유창근외 2인, 2014; 심규원의 2인, 2013 등)와 함께 최근에는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김기호외 2인, 2013; 강기래외 2인, 2012)도 다수 수행되었다. 경주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방문객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가치와 문화유적 가치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자연환경 가치보다 문화유적 가치를 높게 평가(강기래외 2인, 2012)한다고 제시한 연구

등 대상지의 자원적 특성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방문객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노정민외 1인(2012)은 도시공원의 가치평가 연구에서, 거주지와 공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원에 대한 가치 인식은 낮아지며 이용빈도, 성별, 교육 수준, 소득 등은 거리와 상관없이 공원에 대한 가치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여 방문객의 특성이 가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가치 인식은 재방문 의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기호외 2인(2013)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도서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관광객이 느끼는 관광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지각된 가치(상품가치, 지각된 서비스, 가격가치 등)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각된 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가치는 공원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의 유형 및 방문자 유형의 차이가 가치 인식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가치인식이 높아질수록 방문객들의 재방문 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은 증명되었지만, 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활동유형, 방문경험에 따라 가치 인식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립공원 중에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보유하여 가장 다양한 방문행태를 가지는 남한산성을 대상으로 방문객을 등산객과 비등산객으로 구분한 뒤, 최초방문객과 재방문객,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 분류하여 장소성 가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원의 가치를 측정하여 공원의 자원가치를 규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공원관리방안 및 정책의 필요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공원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대상지 및 설문조사 개요

남한산성 행궁, 수어장대, 승렬전 등 11개의 주요 문화재가 입지하고 있는 남한산성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국내에서 11번째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와 연결하고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경기도내에 최초로 지정된 도립

공원이며, 총 면적은 34.45km² 이다. 성벽의 외부는 급경사를 이루는데 비해 성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평균고도 350m 내외의 넓은 구릉성 분지를 이루고 있어 등산, 탐방이 용이하여 이용률이 매우 높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거·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4년 10월 19일 2명의 설문요원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동문, 북문, 남문, 그리고 5개의 탐방로 코스 중 3개의 코스의 동선이 만나는 수어장대에서 총 30부의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하기 난해한 7개 문항을 수정하였고 예비조사를 포함한 총 3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북문과 수어장대를 설문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IRB의 심의를 통해 연구윤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검증을 거친 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1월 2일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총 7일(주중 3일, 주말4일)동안 19세 이상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 중 결측치(Missing Value)가 많거나 극단치(Outliner)가 심한 설문표본을 제외한 유효표본 587부를 분석하였다.

2. 측정항목과 분석 개요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기존 선행연구의 변수들을 기초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주요 측정요인인 남한산성도립공원이라는 장소의 가치인식에 대해 묻는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소의 가치에 대한 항목은 Gregory Brown(2005)이 사용한 14개 항목들과 Gregory Brown & Christopher Raymond(2007)가 사용했던 12개의 항목 중, 9개 항목들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고 3가지의 항목을 추가하였다.(Table 1)

문화유산 체험과 자연 경험을 두루 할 수 있는 남한산성의 특성에 맞게 매력적인 경치·향기·소리, 야외활동, 다양한 동식물 서식, 야생생태환경 보존, 지역의 문화와 전통, 존재 그 자체의 가치, 환경에 대해 배우는 장소, 심신을 건강히 해주는 장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남한산성에서 간접적으로 연관하여 지각할 수 있는 가치들은 인근에 친지거주, 인근에 친구거주, 지역사업·활동의 장, 정신적으로 특별한 장소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에 대한 응답은 1점-중요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중요함으로 답하게 하였다.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측정변수의 통계학적 타당성 분석은 주성분(PCA)방법의 직교회전(Varimax)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

Table 1. Place Value Scales

Type of value	Measuring Item		
	This Study's	Brown(2005)	Brown & Raymond(2007)
Aesthetic/Scenic	I value these areas the attractive scenery, sight, smells, or sounds	I value these areas for the scenery-mountains, glaciers, forests, beaches, tidelands, bays, and islands	I value these places the attractive scenery, sight, smells, or sounds
Economic	-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provide economic opportunities such as fisheries, tourism, or processing	I value these places for economic benefits such as tourism, forestry, agriculture, or other commercial activity
Recreation	I value these areas because I receive outdoor recreation opportunities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provide place for outdoor recreation activities	I value these places because I receive outdoor recreation opportunities
Life Sustaining	-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are places that produce, preserve, clean, and renew air, soil, and water	I value these places because they help produce, preserve, and renew air, soil, and water
Learning	I value these areas because I come here to learn about the environment	I value these areas because we can use them to learn about the environment	I value these places because we can use them to learn about the environment
Biologicaldiversity	I value these areas because I receive for a variety of plants, wildlife, or other living organisms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provide place for a variety of marine life, plants, waterfowl, religious, or spiritually special to me	I value these places because I receive for a variety of plants, wildlife, or other living organisms
Spiritual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special to me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are sacred, religious, or spiritually special to me	I value these places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special to me
Intrinsic	These areas are valuable for their own sake, no matter what I or others think about them or whether they are actually used	I value these areas just because they exist, no matter what I or others think about them or how we use them	These places are valuable for their own sake, no matter what I or others think about them or whether they are actually used
Historic	-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are places and things of natural and human history	-
Future	-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allow future generations to know and experience the areas as they are now	I value these places because they allow future generations to know and experience the areas as they are now
Subsistence	-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provide necessary food and materials to sustain people's lives	-
Therapeutic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make people feel better, physically and/or mentally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make people feel better, physically and/or mentally	I value these places because they make people feel better, physically and/or mentally
Cultural value	-	I value these areas because people can continue to pass down wisdom, traditions, and a way of life	-
Wilderness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are wild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are wild	I value these areas because they are wild
Heritage	I value these areas because it have local culture and tradition	-	I value these places because they have natural and human history
Familytie	I value these areas because I have a family ties in the area	-	-
Friendstie	I value these areas because my friends visit or stay close by	-	-
Communitytie	I value these areas because it provide opportunities to be involved in community projects and activities	-	-

분석(EFA)을 실시하였다. 구성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값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검정을 통하여 성격이 다른 집단 간의 변수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특징과 방문행태

전체 응답자의 54.2%가 남성, 45.8%가 여성이었다. 연

령은 50대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9.1%), 30대(15.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회사원(29.0%), 주부(21.3%), 자영업(17.9%), 전문직(15.8%)순으로 다양한 직업군에서 고르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7.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25.4%), 500만원 이상(25.0%)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중 지역주민은 37.1%, 관광객은 62.9% 그리고 최초 방문객이 29.0%, 재방문객이 71.0%로 조사되어 관광객과 재방문객이 많았다. 방문의 주된 목적은 등산이 69.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 활동으로 친목(10.6%), 세계문화유산 등 문화 관광(7.3%), 유명관광지 방문(5.8%) 순으로 나타났다.

등산 활동 이외에 나타난 친목, 문화재 방문, 유명관광지 방문 등을 비등산 활동으로 분류하여 남한산성에서의 방문활동을 등산 활동과 비등산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활동에 따라 구분된 등산객과 비등산객 각각의 인구통계특징과 이용행태를 비교해보면, 등산객의 총 표본은

408명이며 비등산 활동으로 분류된 응답자들의 표본은 179명이었다. 등산객의 성별은 남성(59.8%)이 많았던 반면 비등산객은 여성(58.7%)이 많았고 연령에서는 등산객은 40대(30.4%), 50대(32.6%) 비율이 높은 반면 비등산객의 경우 20대(16.8%), 30대(20.1%), 40대(26.3%), 50대(26.3%)에 걸쳐 골고루 방문하고 있었다. 직업군에서 차이가 컸던 것은 학생의 참여율로, 등산객에서는 3.9%에 불과한데 비해 비등산객에서는 15.6%였다는 것이다. 가구소득은 두 집단 모두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주민 여부에서 등산객과 비등산객 모두 관광객의 비율이 높았지만 등산객의 경우 관광객(58.1%), 지역주민(41.9%)로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비등산객은 관광객(73.7%)이 지역주민(26.3%)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재방문 여부에서는 등산객의 경우 재방문객이 83.3%나 되지만 비등산객은 최초방문객(57.0%)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응답자의 재방문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등산객의 영향인 것으로 고찰되었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 of respondents and form of visit

Division		All respondents (N:587)		Hiker (N:408)		Non-hiker (N:179)	
		Frequency(N)	Percentage(%)	Frequency(N)	Percentage(%)	Frequency(N)	Percentage(%)
Sex	Male	318	54.2	244	59.8	74	41.3
	Female	269	45.8	164	40.2	105	58.7
Age	10's	4	0.7	1	0.2	3	1.7
	20's	56	9.5	26	6.4	30	16.8
	30's	93	15.8	57	14.0	36	20.1
	40's	171	29.1	124	30.4	47	26.3
	50's	181	30.8	133	32.6	48	26.8
	60's	67	11.4	57	14.0	10	5.6
	Over 70's	15	2.6	10	2.5	5	2.8
Occupation	Own business	105	17.9	85	20.8	20	11.2
	Company worker	170	29.0	122	29.9	48	26.8
	Profession	93	15.8	68	16.7	25	14.0
	Housewives	125	21.3	80	19.6	45	25.1
	Student	44	7.5	16	3.9	28	15.6
	Other	50	8.5	37	9.1	13	7.3
Income level (monthly)	Less than 1 million won	10	1.7	7	1.7	3	1.7
	1~2 million won	32	5.5	24	5.9	8	4.5
	2~3 million won	90	15.3	58	14.2	32	17.9
	3~4 million won	159	27.1	106	26.0	53	29.6
	4~5 million won	149	25.4	103	25.2	46	25.7
	More than 5 million won	147	25.0	110	27.0	37	20.7
Local resident	Yes	218	37.1	171	41.9	47	26.3
	No	369	62.9	237	58.1	132	73.7
First time visit	Yes	170	29.0	68	16.7	102	57.0
	No	417	71.0	340	83.3	77	43.0
Purpose of visit	Hiking	408	69.5	-	-	-	-
	Other activities	179	30.5	-	-	-	-

2. 가치 인식 요인

전체 응답자의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가치인식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의 요인으로 설명되었다(총 분산 설명력 69.728%). 첫 번째 요인은 심신을 건강히 해주는 장소, 존재 그 자체의 가치, 매력적인 경치·향기·소리 항목을 포괄하는 “건강·휴양”, 두 번째 요인은 다양한 동식물 서식, 야생생태환경 보존, 환경에 대해 배우는 장소를 포괄하는 “생태·환경”, 세 번째 요인은 인근에 친지거주, 인근에 친구거주, 정신적으로 특별한 장소를 포괄하는 “유대감”이다. 각 요인 별 크론바하의 알파 값은 건강·휴양 0.723, 생태·환경 0.755, 유대감 0.681로 모두 일반적 기준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의 주된 활동에 따른 가치인식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등산객과 비등산객으로 나누어 각 표본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전체표본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하였다. 등산객과 비등산객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하의 알파 값은 각 0.774, 0.805로 조사되어 신뢰도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등산객과 비등산객 또한 전체응답자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등산객이 66.182%, 비등산객이 62.096%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건강·문화로서 심신을 건강히 해주는 장소, 존재 그 자체의 가치, 매력적인 경치·향기·소리, 지역의 문화와 전통으로 전체표본 요인분석의 첫 번째 요인에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생태·환경이며 다양한 동식물 서식, 야생생태환경 보존, 환경에 대해 배우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고, 세 번째 요인은 유대감이며 인근에 친지거주, 인근에 친구거주, 정신

적으로 특별한 장소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전체표본 요인 분석의 두 번째, 세 번째 요인과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각 요인별 크론바하의 알파 값은 등산객이 건강·휴양·문화 0.768, 생태·환경 0.734, 유대감 0.645이며, 비등산객이 건강·휴양·문화 0.689, 생태·환경 0.778, 유대감 0.743이었다.(Table 4)

3. t검정

남한산성도립공원 방문객의 주요 활동과 재방문 여부에 따라 가치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등산객과 비등산객간에는 가치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산객의 가치인식이 비등산객보다 높게 나타나 등산객이 비등산객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건강증진과 휴식에 대한 체감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도립공원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가치인식 비교에서는 건강·휴양 요인에 대해서는 0.747로 가치인식 차이가 없었고, 생태·환경과 유대감에서는 각각 유의확률 0.009, 0.002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관광객에 비하여 생태·환경에 대하여 높은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증진과 휴식의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지역주민이 관광객보다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과 생태보존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표명하고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최초방문객과 재방문객의 가치인식 비교에서는 건강·휴양, 생태·환경, 유대감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확률이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All respondent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a
Health·Recreation	feel better physically and/or mentally	.807	3.128	25.816	.723
	valuable for its own sake	.799			
	attractive scenery, sight, smells, or sounds	.665			
Ecology·Environment	variety of plants, wildlife, or other living organisms	.900	2.058	22.344	.755
	conservation of Wilderness	.850			
	learn about the environment	.499			
Connected-ness	family ties in the area	.909	1.090	21.568	.681
	friends visit or stay close by	.904			
	spiritually special to me	.469			

- KMO :.728 Cumulative % : 69.27

Table 4.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Hiker and Non-hiker)

Division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a
Hiker	Health-Culture	feel better physically and/or mentally	.818	3.541	27.569	.768
		valuable for its own sake	.815			
		attractive scenery, sight, smells, or sounds	.675			
		local culture and tradition	.590			
	Ecology-Environment	variety of plants, wildlife, or other living organisms	.887	1.966	19.973	.734
		conservation of Wilderness	.836			
		learn about the environment	.469			
	Conned-tedness	family ties in the area	.894	1.111	18.640	.645
		friends visit or stay close by	.894			
spiritually special to me		.448				
Non-hiker	Health-Culture	feel better physically and/or mentally	.777	3.460	22.976	.689
		valuable for its own sake	.740			
		attractive scenery, sight, smells, or sounds	.585			
		local culture and tradition	.480			
	Ecology-Environment	variety of plants, wildlife, or other living organisms	.882	2.209	22.543	.778
		conservation of Wilderness	.869			
		learn about the environment	.501			
	Conned-tedness	family ties in the area	.918	1.099	22.156	.743
		friends visit or stay close by	.891			
spiritually special to me		.585				

Hiker- KMO :.752 Cumulative % : 66.182
 Non-hiker- KMO :.732 Cumulative % : 67.673

0.000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재방문객의 가치인식이 최초방문객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방문객은 최초방문객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있을 때 심신이 건강해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연환경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해 감정적·정신적으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Table 5)

다음으로는 등산객과 비등산객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표본 안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최초방문객과 재방문객의 가치인식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등산객의 지역주민 여부, 재방문 여부에 따른 가치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건강·휴양·문화에서 지역주민 여부에 대한 유의확률은 0.427로 나타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건강·휴양·문화에 대한 가치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방문 여부에서는 0.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재방문객이 최초방문객보다 건강·휴양·문화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생태·환경에서는 지역주민 여부와 재방문 여부

에서 각각 0.024, 0.008의 유의수준을 보였으며, 지역주민과 재방문객이 관광객과 최초방문객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생태·환경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대감에서는 유의수준 0.020으로 지역주민이 관광객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며, 재방문 여부에서는 0.850로 나타나 최초방문객과 재방문객간 차이가 없었다.(Table 6)

비등산객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여부와 재방문 여부에 따른 가치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 여부에서는 건강·문화, 생태·환경, 유대감의 유의확률이 각각 0.566, 0.704, 0.231로 나타나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재방문 여부의 유의확률은 0.001, 0.006, 0.000로 재방문객이 최초방문객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건강·휴양·문화, 생태·환경, 유대감에 대하여 높은 가치인식을 보였다. 즉, 비등산 활동에서는 지역주민인가 관광객인가 보다는 재방문객일수록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Table 7)

Table 5. Comparison of value perception along form of visit(All respondents)

Factor	Form of visit	Mean	Standard deviation	t	P
Health·Recreation	Hiking	4.303	.745	2.895	.004
	Non-hiker	4.115	.667		
	Local resident	4.267	.747	.555	.579
	Tourist	4.233	.715		
	First time visitor	3.925	.690	-7.093	.000
	Repeat visitor	4.376	.701		
Ecology·Environment	Hiking	3.637	.846	3.824	.000
	Non-hiker	3.338	.921		
	Local resident	3.669	.897	2.624	.009
	Tourist	3.473	.863		
	First time visitor	3.260	.849	-5.124	.000
	Repeat visitor	3.662	.867		
Connedtedness	Hiking	2.530	.975	4.084	.000
	Non-hiker	2.175	.957		
	Local resident	2.588	1.013	3.184	.002
	Tourist	2.323	.952		
	First time visitor	2.158	.977	-4.199	.000
	Repeat visitor	2.529	.965		

Table 6. Comparison of value perception along form of visit(Hiker)

Factor	Form of visit	Mean	Standard deviation	t	P
Health·Culture	Local resident	4.276	.692	.794	.427
	Tourist	4.219	.729		
	First time visitor	3.864	.733	-4.937	.000
	Repeat visitor	4.319	.685		
Ecology·Environment	Local resident	3.748	.867	2.266	.024
	Tourist	3.557	.824		
	First time visitor	3.387	.736	-2.687	.008
	Repeat visitor	3.687	.859		
Connedtedness	Local resident	2.662	.988	2.344	.020
	Tourist	2.434	.956		
	First time visitor	2.509	.978	-1.189	.850
	Repeat visitor	2.534	.976		

Table 7. Comparison of value perception along form of visit(Non-hiker)

Factor	Form of visit	Mean	Standard deviation	t	P
Health·Culture	Local resident	4.053	.718	-.575	.566
	Tourist	4.117	.635		
	First time visitor	3.963	.667	-3.308	.001
	Repeat visitor	4.282	.599		
Ecology·Environment	Local resident	3.383	.952	.381	.704
	Tourist	3.323	.913		
	First time visitor	3.176	.910	-2.764	.006
	Repeat visitor	3.554	.897		
Connedtedness	Local resident	2.319	1.067	1.203	.231
	Tourist	2.123	.913		
	First time visitor	1.924	.909	-4.209	.000
	Repeat visitor	2.506	.923		

등산객과 비등산객 각각의 표본을 이용한 t검정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등산객 중 지역주민은 관광객보다 생태·환경, 유대감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는 반면 비등산객의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가치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유형의 방문객이더라도 주된 활동에 따라 장소에 대한 가치인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찾은 이용객들의 주요 활동, 방문경험과 장소성 가치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산성의 장소성에 대한 가치는 건강·휴양, 생태·환경, 유대감으로 분류되었으며, 도립공원에서의 등산객과 비등산객 간의 최초방문객과 재방문객의 가치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주요 활동은 등산과 문화재 관람 등의 활동을 하는 비등산객으로 분류되었으며, 등산객은 남성이 많은 반면 비등산객은 여성비율이 높았고 두 집단 모두 40,50대 관광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등산객 집단은 재방문율이 높았지만 비등산객 집단의 경우 최초방문객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재방문율이 높은 것은 등산객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등산객은 비등산객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건강증진과 휴식,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등산객과 재방문객이 비등산객과 최초방문객에 비하여 건강·휴양, 생태·환경, 유대감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지역주민 여부보다는 재방문 여부가 남한산성의 장소성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의 쾌적한 탐방로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산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재방문율이 낮은 비등산객 집단의 1회성 방문의 원인 분석,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과제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대상지는 등산과 문화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으로, 등산 활동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도립공원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형적인 등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의 2개 도립공원을 추가 조사하여 한국 도립공원의 장소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7279)

References

1. Brown Gregory, 2005, Mapping spatial attributes in survey research for natural resource management: methods and applications,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8(1), pp.17-39.
2. Brown Gregory, Christopher Raymond,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landscape values: Toward mapping place attachment, Applied geography, 27(2), p.89-111
3. Cho, Moon Soo, 1995, A Study on the Actual Visiting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in the Namhansansung Provincial Park, Annual Bulletin of Seoul Health, 15, pp.387-406
4. Cho, Ui Young, 2006, The Direction for Complex Natural Park Development According to Demand Analysis of Touris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6(11), pp.85-94..
5. Han, Bong Ho, Choi, Jin Woo, Non, Tai Hwan, Hur, Ji Yeon, 2014, The Structure of Plant Community of the Woonsooam Valley in Jogyesan (Mt.), Suncheon,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28(1), pp.45-54.
6. Heo, Sang Hyun, 2008, Research on the Use Behaviors and Satisfaction of Gyeongju Namsan, a Historic National Park,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6, pp.66-78
7. Hong, Jung Hwa, 2009, A Comparative Study of First-time Visitors and Repeated Visitors to Local Festival : Focused on Gwangalli Eobong Festival, Academic Society of Event & Convention, 5(2), pp.23-35
8. Hwang, Shiuh Nan., Lee, Chuan, Chen, Huei Ju, 2005, The relationship among tourists' involvement, place attachment and interpretation satisfaction in Taiwan's national parks, Tourism Management, 26, pp.143-156.
9. Jang, Yang Lae, 2007, A Comparative Study of Local

- Festival Motivation, Satisfaction Estimate, Behavioral Intentions and Local Culture Perception: The Case of First Time Visitor and Repeated Visitor, Tourism Management Research Organization, 30, pp.167-191
10. Jeon Hyoung Kyu, Kang, In Ho, Cho, Won Seb, 2010, A Study on the Structural of Characteristics in Tourism Site, Tourists'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5(3), pp.237-258.
 11. Ju, Hyo Jin, Jeong, Jun Ho, 2013,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s Core Function :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7(2), pp.443-464
 12. Kang, Kee Rae, Kim, Dong Pil, Beak, Jae Bong, 2012, Comparative Study on Monetary Estimates of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Relics in Gyeongju National Park,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26(2), pp.273-282.
 13. Kim, Bo Hyun, Oh, Koo Kyoony, 2012, A Study on Management Strategies of Time Based on Visitor's Moving Pattern in Mudeungsan Provincial Park,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26(6), pp.960-969.
 14. Kim, Hyun, Chang, Ho Sung, Hwang, Jin Soo, 2014, A Study of Tourism Motivation and Destination Choice Attributes in Tourism Behavior: Focusing on Ansan City,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28(1), pp.219-232
 15. Kim, Jin Tak, Cho, Joong Hyun, 2011, Recognition Difference of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to Urban Park Operation and Management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Wolmi Park in Incheon-,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25(3), pp.432-441
 16. Kim, Jong Yup, 2012, The Structure of the Plant Community in Seonamsagol(Valley), Jogyesan(Mt.) Provincial Park, Sunchoen City,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26(4), pp.593-603.
 17. Kim, Ki Ho, Chung, Ki Han, Shin, Jae Ik, 2013, The Effects of Small Island Tourism Attribute and Experience Quality on Behavior Intention -The Focus of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The Korean Association of Island, 25(1), pp.61-83.
 18. Kim, Sang Mi, Kim, Sang Oh, 2013, Resource Substitutability for Hiking Activity and Related Factors -Focusing on Mudeungsan Provincial Park and Eudeungsan-,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27(6), pp.765-776.
 19. Kim, Sang Oh, 2011, Influence of place attachment on visitors'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establishing cable cars in Mudeungsan provincial park. J. Korean Soc. People Plants Environ 14(3), pp.171-180.
 20. Kim, Sei Chon, Huh, Joon, Park, Bong Ju, 1995, A study on the users'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oaksan provincial park,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3(3), pp.167-176
 21. Kim, Yong Shik, 1989, In Case of Pinus densiflora Community = On the Vegetational Community of the Palgongsan Provincial Park, The Institute of Resource Development Yeungnam University, 8, pp.47-57.
 22. Lee, Bo Mi, Oh, Mun Hyang, Kim, Ja Hyun, 2013, Effects of Communication with Nature and Perception of Benefits on Place Attachment at Jeju Olle,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7(1), pp.215-235.
 23. Lee, Chang Heon, Yang, Seung Hyeon, Lim, Yu Mi, 2013, Analysis of satisfaction between user's group in Byeonsanbando National Park,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Welfare, 17(1), pp.1-8
 24. Lee, Duk Jae, 2015, A Comparison of Visitor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Satisfaction of Temple Forest Trails in Kajisan Provincial Park,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Welfare, 19(1), pp.15-23.
 25. Lee, Jae Kon, Han, Keum Hee, Kim, Jun Ga,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tivation & Behavioral Intentions According to Visit Experience of Tourism -Comparison between First-time Visitors and Repeat Visitors-, Korean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8(3), pp.269-289
 26. Lee, Jae Young, Lee, Sun Kyung, 2003, Conflicts between Preference and Value in Establishing Ecological Management Policy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A Case of National Park Management Issues-,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16(1), pp.55-67.
 27. Lee, Jin Eui, Kim, Jin Ok, Kim, Nam Jo, 2015, Analysis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Outdoor Recreation Trackers' Participation Motivation,

- Wellness, Satisfaction, and Loyalty: Focusing on Mt. Bukhan National Park Trackers,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9(6), pp.225-224
28. Lee, Ju Hee, Kim, Tae Kyun, Bea, Min Ki, 2006, The Estimation of Visit and Preservation Value for the Gradation of Entrance Fee in National Parks,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Welfare, 10(4), pp.29-40.
 29. Lee, Sook Hyang, 2015a, A Study on the Listing of Landscape Resources and Grade Evaluation in Hallyeohaesan National Park,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Welfare, 19(1), pp.55-63.
 30. Lee, Sook Hyang, 2015b,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visitors' Satisfaction for Palgongsan,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6(1), pp.7-11
 31. Needham, Mark D, Vaske, Jerry J, Donnelly, Maureen P, Manfredo, Michael J, 2007, Hunter specialization and declining participation in response to chronic wasting disease,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39(3), pp.413-437
 32. Noh, Jung Min, Lee, In sung, 2012, Differences due to the Distance in the Economic Valuation of Urban Parks and i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valuation,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3(1), pp.143-154
 33. Park, Hee Jin, 2002, 자연공원 선택행동에 있어서 태도가 만족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14(2), pp.303-315
 34. Park, Soo Jung, 2012, 대학생의 야외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친환경행동에 대한 인식, Korean Society of Leisure and Recreation, 2012(1), pp.101-107.
 35. Sim, Kyu Won, Kwon, Heon Gyo, Lee, Sook Hyang, 2013, A study on Economic Value of National Park based 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 Case of 20 National Parks -,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Welfare, 17(4), pp.33-40.
 36. Uhr, Jeong Yeun, Yuh, Hong Koo, 2010, A Study on Place Value on the Notion Place, Korea Planning Association, 45(6), pp.21-34
 37. Yi, Young Kyoung, 2008, Evaluation of Use Satisfaction for Kyongju National Park - In case of Danseogsan, Soguemgansan, Namsan Chilbul, Th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Welfare, 12(1), pp.1-10
 38. Yoo, Chang Keun, Lee, Seung Gil, Lee, Hye Rin, 2014, A Valuation of Mudeungsan National Park Using CVM: Case of the Payment Vehicles, Tourism Management Research Organization, 60, pp.151-170
 39. Vaske, Jerry J., Maureen P. Donnelly, Thomas A. Heberlein, Byron Shelby, 1982, Differences in reported satisfaction ratings by consumptive and nonconsumptive recreationis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3), pp.195-206.
-
- Received 9 September 2015
 - First Revised 15 October 2015
 - Second Revised 18 November 2015
 - Finally Revised 23 December 2015
 - Accepted 23 December 2015